

치 사

세세생생 큰 뜻을 온 누리에

사단법인 동련의 30돌을 축하합니다.

3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초심을 놓치지 않고 불국중흥을 위해 달려온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린이포교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오늘날 포교의 한 축으로 꽃을 피운 성취는 지대한 공덕이라 할 것입니다. 포교 일선의 스님들과 어린이지도교사, 그리고 묵묵히 후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두 문을 통해 인류에게 참다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종교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남녀노소, 인간이든 미물곤충이든 삼라만상의 어떤 생명에게도 통하는 가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 가정과 사회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어리석음으로 허우적거리지 않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고, 모든 생명을 내 몸 같이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자비로운 삶을 지향한다면 우리 사회는 광명의 사회가 되고, 우리의 삶은 광명의 정토로 성큼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함도 교단의 위세를 과도하게 내세우거나 종교적 우월성을 보이려고 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길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일화 속에도 바로 그 자비롭고 지혜로운 인간의 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포교도 인간의 길을 밝히는 일이기에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들께서 일관되게 그 중요성을 설파하신 포교의 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종단도 수년 전부터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포교의 방법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 변화는 앞선 역사의 점검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역사의 올바른 진단 없이 건실한 미래의 설계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단법인 동련이 여느 단체와 달리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료집을 내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이 한 권의 역사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어린이 포교를 전개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단법인 동련의 사부대중이 한 몸, 한 뜻이 되어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큰 뜻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천과 공덕이 온 누리에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0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